강진 '그라제하우스' 청년 정착 핵심거점 자리매김

공유주거 공모사업 2024년 8월 개소
이용객 첫해 27명→올해 9월엔 71명
로컬 브랜딩 연계 일자리 정착 유도
강진원 군수 "튼튼한 정착 사다리로"



2024년 문을 연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시설 '그라제하우스'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은 그라제하우스를 이용하는 청년들 모습. 〈강진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의 청년마을 공유주거 시설인 '그라제하우스'가 외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병영면 성남리에 위치한 그라제하우스는 탐색 프로그램과 연계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강진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돕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A(32)씨는 지난 9월부터 강진에서 인생 2막을 열었다. 현재 강진군 청년안테나숍 매니저로 활동 중인 그는 그라제하우스의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강진살이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텃밭 모험가 클럽'에서 작물을 가꾸며 농촌의 일상을 배우고 대표 축제인 '강진 불금불파' 등 행사에 참여하며 빠르게 지역사회에 녹아들고 있다.

이처럼 그라제하우스는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넘어 청년들이 일과 생활, 활동을 통해 원주민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구체적인 정착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4년 8월 문을 연 그라제하우스는 주거동과 커뮤니티동을 갖췄다.

개소 후 시설을 찾는 외지 청년들의 발길도 매년 늘고 있다. 체류형 프로그램 이용 인원은 2024년 27명에서 2025년 6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9월 말 기준 71명이 다녀갔다.

특히 대학 연계 로컬 경험 프로그램, 작은 영화관 상영 프로그램 등 특화 문화·진로 활동을 활발히 운영하며 올해만 무려 793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 거점 시설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강진군은 그라제하우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유 자원을 활용한 연계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병영면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과 농촌의 일상을 2박3일간 체험하는 '강진품애 살아볼래' 프로그램이 대표 사업이다.

2027년부터는 전남관광재단의 '소도시 여행권역 육성사업'과 연계해 그라제하우스를 전남 서부권역을 아우르는 청년 여행·체류형 거점 공간으로 도약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강진군청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개개인의 관심 분야에 맞춘 맞춤형 취·창업 및 귀농·귀촌 정책을 안내하고 선배 정착 청년들과의 멘토링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그라제하우스가 타지 청년들에게 강진의 따뜻한 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베이스캠프가 되고 있다"며 "청년들의 소중한 체류 경험이 단발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와 성공적인 창업, 그리고 완전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착 사다리'를 튼튼하게 놓겠다"고 강조했다.

/강진=박길종 기자

목포시립도서관장 임용 '보은인사' 논란 재점화

이달 초 서류·면접 거쳐 최종 선정
現 시장 선거캠프 출신 채용 의혹
행정·교육 경력자 허용 특혜 소지
시민사회 "전문가 지원 차단" 비판
市 "적법절차 거쳐 선발 신뢰 회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립도서관장에 지방선거 캠프 출신으로 의심받는 인사가 최종 임용되며 '보은인사' 논란과 함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목포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목포시립도서관장 공개모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신원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이달 2일 최종 임용을 완료했다.

신임 관장은 오는 2028년 6월30일까지 목포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총괄하며 월평균 398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공모 시작 단계부터 특정 선거 공신을 챙기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을 낳으며 지역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 앞서 불거진 목포국제축구센터 직원 공모 논란에 이어 두 번째 제기된 의혹이다.

논란의 핵심은 문턱을 낮춘 응시 자격 요건이다. 재단은 공모 당시 10-20년 경력의 정사서 자격증 보유자 외에도 '행정·교육 등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라는 조항을 예외적으로 삽입했다. 사실상 도서관 운영 전문성이 없는 인사도 관장직에 오를 수 있도록 특혜성 길을 열어둔 셈이다.

일각에서는 심사위원 구성·평가 기준 등 선발 과정 전반에서 특정 인사와의 정치·개인적 관계를 배제하고 도서관 운영 능력·지역 발전 비전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시장 선거 캠프 출신으로 의심받는 인사가 임용되며 공정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정 인사 내정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정작 실력 있는 외부 도서관 전문가들은 들러리를 서지 않기 위해 지원조차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비판이다.

시민사회는 도서관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대출 공간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행정과 콘텐츠를 융합하는 거점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시점에 비전문가 임용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는 "시립도서관은 문화 행정의 주변부가 아닌 인재 육성과 시민 역량을 키우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전문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목포만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래형 시민 지식문화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에 대해 목포시와 재단 측은 규정에 따른 투명한 적법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문적인 도서관 운영 뿐만 아니라, 조직·예산 관리, 대외 협력 등 종합적인 능력을 다각도로 고려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시립도서관이 지식문화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진도개 혈통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郡,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자증명서 발급
출생 신고·진료 예약 등 행정 편의 제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천연기념물 진도개의 혈통과 생애 이력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진도개 혈통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2026년 정보통신기술 활용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전통 반려견 혈통인증관리시스템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진도개 양육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생 확인서와 진도개 증명서, 혈통 증명서 등 총 3종의 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전자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분산형 정보 저장 기술(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기술(DID)을 적용해 증명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며 혈통 인증 신뢰도를 높였다.

양육 농가의 행정 서비스 이용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공공앱을 통해 소유자와 주소 변경, 반출입 신청은 물론, 진료, 예방접종, 전자칩 관련 예약, 심사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 현장 방문이 필요한 절차는 유지하되 민원 처리와 승인 내역을 문자로 안내해 농가 이용 편의를 끌어올렸다.

/진도=박세권 기자

무안군, 주택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차상위계층·한부모·신혼부부 포함
2억 미만 주택 매매시 최대 3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까지 포함됐다. 적격자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적용 대상은 해당 자격을 갖춘 주민 가운데 지난 9월1일 이후 무안군 내 2억원 미만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 지급을 완료한 가구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무안군 민원지적과 또는 남악출장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자격 증빙서류, 주택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적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이사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비상근무 운영

내달 5일까지 평일 개점 30분 앞당겨
사전 임대 제도 병행 영농 지원 주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3일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업인 영농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농기계임대사업소 3곳(본점·동부점·서부점)은 전날부터 오는 12월5일까지 개점 시간을 기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30분으로 30분 앞당겨 운영한다.

비상근무 기간 동안 평일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이른 아침부터 농작업에 나서는 농가를 위해 '전일 사전 임대' 제도도 병행한다.

전날 운영 종료 전까지 사업소를 방문해 농기계를 미리 출고받을 수 있어 농업인들이 각자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번기 농가의 일손을 덜고 적기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비상근무를 통해 운영 시간을 확대했다"며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기계 임대 서비스 이용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해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내일까지 접수…0.1-2㏊ 범위 직불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3일 "오는 5일까지 경영비 부담이 커진 벼 재배 농가 운영을 돕고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비 66억여원을 확보해 '벼 경영안정 대책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0.1-2ha까지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농지와 전략작물직불금 참여 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희망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벼 경작 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타 시·군 경작 농지 조회와 신청농지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ha당 지급단가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중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을 통해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쌀 생산·가공·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군, 지방소멸 대응 아이디어 공모

일자리·군정 등 4개 부문 18일까지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3일 "오는 18일까지 '2026년 완도군 지방소멸 대응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완도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거주지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치유관광·생활 인구 확대 ▲기타 군정 발전 정책 등 총 4개 부문이다.

군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단순 인프라 확충보다는 고유 자원을 연계하거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 서비스 발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효과성 등을 심사해 12월 중 수상작을 선정하며 금상 70만원, 은상 40만원, 동상 25만원 등 등급별 시상금이 지급된다.

발굴된 우수 제안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실제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 현장을 잘 아는 국민들의 참신한 시각이 필수"이라며 "일상 속 작은 아이디어가 완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도=윤보현 기자